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어머니께서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향과 초를 피우면서 새벽기도를 드리십니다. TV에서 보아왔던 무당집 같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주위 분들도 무속이 아닐까 걱정하고요.

A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린다는 건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법이다 무속이다 분별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일어나는 기도가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보통 절에서 부처님이나 탱화를 모실 때는 점안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모시게

됩니다. 불자님 생전에 부모께 효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후에도 그 정성 이어지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해 보시면 기쁨 두 배 또 일상에서 바쁜 중 만난 집안 식구들과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후손·자식들께도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장보살·관음보살의 가피력에 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석가모니불의 가피를 입었다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군요. 석가모니불 기도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편으로 삼은 보살님들에게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요즘 불교의 목적이 성불

새벽마다 불화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무속인?

불교 알아 새벽기도하는 어머니 이해해보세요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닿는 곳 처처(장소가) 도량(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하셨어요. 재가자들이 부득이 절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드릴 때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전을 올려놓고 향이나 초를 피워놓고 기도를 드리지요. 향과 초를 피우는 건 자신의 온갖 잡념과 망상을 털어버리고 부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불교에 대해 공부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어머니에 대해 걱정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Q 부모님 돌아가시고 조계종 이름 있는 절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7번 기도하며 49재를 지냈습니다. 그럼 천도가 다 됐는데 왜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A 49재는 망자의 생전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극락 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게 하는 천도식이 맞습니다. 제사는 휘일(돌아가신 날)에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우리의 전례 전통 풍습인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후손의 도리인 것처럼 관습화된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을 규제가 있는 것은 아

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락을 가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초심자로 불교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며 지금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하시지만, 방편에 대한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길(대기설법)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정근기도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방편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참 기도에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없듯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오신 부처님이 바로 보살님입니다. 즉, '불'과 '보살'은 틀이 아닙니다. 이 개념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며, 이것이 집착이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방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불'과 '극락'이라는 집착 역시 놓아버리는 수행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abo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매일 법회 봉행되는 군 불심의 중심

희망법당 탐방 호국원광사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국방부에 위치한 호국원광사(주지 종오 고현등 법사)는 국군 최초 군법당이다. 호국원광사는 군불교를 상징하는 만큼 법당의 성격과 신도들의 구성이 타 법당과 달리 독특하다.

호국원광사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의 관계처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위치한 교구 지원법당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군승법회와 교육, 장성 취임 법회 등 각종 법회 및 행사들이 매월 수차례씩 진행된다. 또한 군불자를 총괄하는 국군불교총신도회가 바로 옆에 위치한 장성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 고현등 법사는 "호국원광사는 군불자 특히 불자



예비역 장성불자회 '예불회'와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불자, 가족들이 원광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국군 최초 군법당... 군불교 상징이자 마음의 고향 교구 지원법당 특화... 신도관리 체계화로 신자 증가

군장성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의 경우 먼곳에서도 지역사찰보다 마음이 편한 원광사를 즐겨 찾는다라는 전언이다.

장성부인회, 성보회 정기법회 등 부녀회의 활동도 원광사를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산훈련소를 돕는 어머니 모임 불교어머니회와 같은 단체들도 원광사에 자리해 젊은 불자 수급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원광사와 타 군법당의 또 다른 차이점은 영의에 위치한 일반신도들이 많다는 것이다. 원광사에서 장성·일반인·사병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법회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금강회와 법우회, 불심회 등 다양한 모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일요법회, 화요 오찬법회, 수요 참회법회 등 법회가 매일 봉행된다. 일반인들을 위한 서예교실, 다도교실, 한지공예강좌 등 문화교양 강좌도 개설돼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원광사 합창단의 경우 각종 법회에서의 음성공양을 넘어 장성과 사병, 그리고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 속에 원광사는 최근 고현등 법사 부임 이후 1년간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다. 신도관리 체계화를 통해 신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 원인에는 원광사 측이 실시한 감동서비스가 있었다. 고현등 법사는 장성 및 임원 가족 생일과 각종 기념 법회 등에 문자메시지 및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했다. 또 기존



종오 고현등 법사.

사찰에서 연등비, 기도비 등을 DB화 한 데서 더 나아가 각 신도별 불전봉투를 지급해 통상 무기명 보시로 되던 보시금을 체계화시켰다.

고현등 법사는 "각종 기념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각종 법회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며 "또 인기 초 교제한 중무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보시금 및 기도비를 관리, 연말정산 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무주상보시를 원하는 신도들에게는 무기명 봉투가 지급되는 등 관리 다각화도 진행됐다. 고 법사는 또 기존 수요, 일요법회에서 오찬법회와 참회법회 등 매일 법회가 봉행되는 사찰로 변모시켰다. 특히 매회 20~40명씩 참석하는 참회법회의 경우 기존 법회 방식에서 경전강의와 참선 등이 진행돼 성도재일법회 시 3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2010년 호국원광사는 이러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심검당 증축공사 등 사적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신도 배가 계획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현등 법사는 "용산의 각 고종아파트마다 원광사를 비롯한 불교사찰의 불자회들이 들어섰으면 하는 원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회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교구 활동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 군포교 핵심사찰의 위상이 더욱 우뚝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호국원광사는?

호국원광사는 1969년 8월 14일 육군본부 중앙법당으로 그 문을 열었다. 호국원광사는 국군 첫 법당인 만큼 초기 군불교 역사의 이름과 기쁨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68년 11월 30일 군법사 1기 5명이 임관한 이후 불교계는 변변한 군법당조차 갖지 못했으나 9개월 만인 1969년 4월 23일 착공한 공동종교센터를 통해 군포교를 시작했다.

공동종교센터는 1980년 11월 공간이 협소해 종교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사무실과 다목적홀 등을 갖춘 현재의 2층 법당으로 증축됐으며, 육군본부가 계층대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 관할로 바뀌어 국군중앙법당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

1993년 일주문, 종각, 3층석탑, 공덕비, 수련관, 심검당 등을 조성하는 총장불사가 진행돼 호국원광사로 재명됐다. 현재 원광사는 군포교 역사의 산실로 호국영령법회 등 군종교구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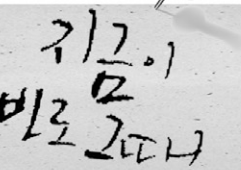
길상사 불교대학 개설 2010년 신입생 모집

도심 속의 아름다운 산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불교대학을 엽니다. 불교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3월 3일 개강)
- 교 수 : 정화스님, 덕현스님, 남전스님, 이평래, 김재성, 서재영, 홍가이 외
- 과 목 : 불교개설, 불교수행, 기초신행, 초기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 대승경전 강설, 선의 역사, 선어록, 불교문화예술편
- 일 정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낮 2시 ~ 5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수강료 : 1년 40만원
- 대 상 :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 200명 (선착순)
- 문 의 : 종무소 02)3672-5945 / www.kilsangsa.or.kr

* 불교대학의 심도 있는 강의를 따라갈 수 없는 분을 위해 마련한 기초과정도 있습니다.
· 기초교리 : 매주 화요일 2시/ 3월 2일 개강
· 토요법당 : 매주 토요일 2시/ 3월 6일 개강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중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 교육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
| 교육기간 |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가수행) |
| 교육장소 |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팩스·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